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2014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2014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

2014 연간보고서

목차

- 00 프롤로그
- 02 인사말
- 05 한국인권재단 소개
- 06 주요활동

- 2014 사업소개**
- 10 A.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 12 B. 기업과 인권
- 18 C. 도시와 인권
- 22 D. 개발과 인권
- 30 E. 인권교육
- 42 인권문화
- 43 2014년 발간자료
- 45 온라인 뉴스레터 및 공간

- 46 재정보고
- 48 후원기금 및 회원가입 안내
- 50 후원해주신 분들
- 51 협력·후원기관/펠로우 & 인턴
- 52 함께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 등 온갖 사고로 점철했던 갑오년 ‘청말띠’ 해가 지고 드디어 을미년 양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는 등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연간보고서에 담긴 주요 사업 소식을 보면서 재단의 한해 발자취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정치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올해 초 재단 이사회는 제5기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비전과 미션을 새로 설정하고,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새로운 비전과 미션 및 이에 따른 사업의 방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듯이 새로운 비전으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 미션으로 “인권교육과 소통의 장을 열어 인권문화를 증진하고 확산합니다”로 정하였습니다.

관례대로 재단의 사업은 아시아(Asia), 기업과 인권(Business), 도시(City), 개발 협력(Development) 그리고 교육(Education)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재단은 2014년 한 해 동안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ADN은 아시아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민주주의 증진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출범한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재단은 민주화기념사업회, 동아시아연구원(EAI),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함께 한국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ADN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상임이사가 ADN의 공동대표로 태국 군부 쿠데타 반대 및 민주화 회복 운동, 발리민주주의포럼, 울란바토르시민사회포럼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업과 인권의 경우 2014년 주요 사업은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번역하고, 스위스의 다국적 식품회사인 네슬레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인권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부터 법적구속력을 지닌 기업과 인권에 대한 협약을 제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카카오톡 사태, 대한항공 회항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 기업 경영자의 인권감수성은 부재하거나 매우 낮습니다. 재단은 기업과 인권 사업을 통해 네슬레처럼 자발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높이는 선견지명을 갖춘 기업을 돕고자 합니다.

도시와 인권의 경우 재단은 국내 처음으로 한국인권도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는 광주시와 서울시, 성북구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도시 사례와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재단은 광주에서 열린 제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와 함께 전문가 워크숍을 주관하였습니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작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재단은 올 한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권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지난 12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재단은 2011년 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전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개발협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HRBA)을 소개하였고,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기존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 차원으로 HRBA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인권교육 사업의 경우 재단은 가장 큰 주력사업인 제4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올해 대학원생은 개발사업에서의 기업과 인권, 학부생은 정보 인권과 알권리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는 2013년 3차 모의재판 수상자를 대상으로 제네바, 파리, 헤이그의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를 방문하는 인권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재단은 작년 10월 말 춘천에서 북한인권평화회의를 개최하여 북한민주화,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및 평화통일 분야의 연구자 약 30명이 참여하여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북한인권은 재단의 특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진상조사위(CoI) 서울 현장사무소 설립을 앞두고 국내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북한인권을 다룰 수 있도록 대화모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을 주류화하고, 제도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수행했지만 한국사회의 열악한 인권환경과 뒷걸음치는 민주주의로 인해 그러한 노력의 가치가 반감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재단의 비전인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기에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담담하게 주춧돌을 놓고자 합니다.

한해 재단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시고,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재능과 전문성을 나누어주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광현 이사장, 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은

1999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설립되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교육과 소통의 장을 열어 인권 문화를 증진하고 확산하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Vision &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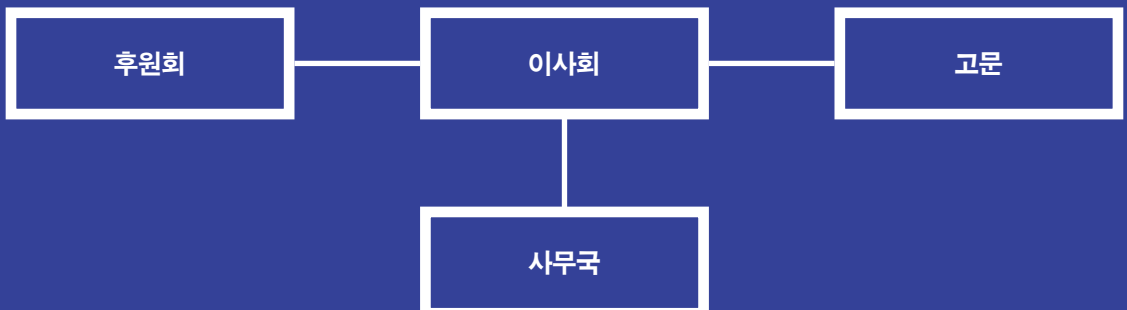
VISION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

인권교육과 소통의 장을 열어 인권문화를 증진하고
확산합니다.
Building Platform and Networking Glocally

MISSION

조직도



2014 주요활동 캘린더

Asia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ADN)

- 제1회 ADN 운영위원회(ADN Steering Committee Meeting), 싱가포르 2/5
- 제1회 ADN 아시아지역 전략회의(ADN Strategic Planning Meeting), 방콕 4/20~4/21
- 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아시아 국제연대회의, 마닐라 7/17~7/18
- 민주주의 공동체(CD) 강화를 위한 아시아 지역 회의, 서울 11/24~11/25
- 북한인권 조찬 대화모임, 서울(총 11회) 6/20~12/12
- 2014 춘천 북한인권평화회의 10/31~11/1

Business

기업과 인권

- 민관협력(PPP) 주제교육(1) 3/20-3/21
- 해외 CSR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전문가 포럼 4/25
- 민관협력(PPP) 주제교육(2) 5/21
- 민관협력(PPP) 실무과정 5/23
-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가이드) 번역 및 보급 7-11월
- 해외인권영향평가 사례연구 - 네슬레를 중심으로 7-11월

City

도시와 인권

-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발간 (국제현황 및 사례연구) 4-8월
- 2014 한국 인권도시백서 발간 4-8월
- 지방정부와 인권 세미나(총 4회) 1/27~5/19
- 제4회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및 지방정부와 인권 국제 전문가 워크숍 5/15

Development

개발과 인권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4/15~10/14
-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12/12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현지조사(주요 공여기관의 인권적 접근) 7/19~8/3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HRBA분과 운영(총 6회) 4/10~9/17

Education

인권 교육

- 2013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수상자 국제인권연수 2/7~2/25
- DHL(Development & Human Rights Lexicon) 교육 1, 2기(총8회) 3/1~5/24
- PHD(Peace-Human Rights-Development) Glocal Leadership School 1기(총10회) 3/6~5/8
- 2014 제2회 모의UN인권이사회 UPR 7/10-7/11
- 2014 제4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8/23

인권문화

- 인권흙씨기금
- 다독(多讀)다독 캠페인

#

2014

사업소개



A.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사업개요

아시아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싱크탱크와 국제기구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군사 구테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10월 서울에서 100여명의 민주주의 활동가가 참여한 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워크(ADN)가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아시아연구원(EAI),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함께 한국민주주의 네트워크(KDN)의 일원으로 ADN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특별 사업으로 6월부터 비공개로 북한인권평화 대화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재단은

이 대화모임을 통해 북한인권과 민주화 운동, 대북 인도적 지원 및 평화통일 운동 사이에 공동의 이해와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른 북한인권진상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권고안 이행과 그 후속으로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인권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와 한국 시민사회의 대화와 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사업 내용은 본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 주요사업

일정	장소	회의명
7/16 - 7/17	태국 방콕	태국 연대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
8/2 - 8/9	필리핀 마닐라	Global Advocacy Leadership in Asia Academy (GALAA)
9/11	대만 타이페이	제2회 아시아민주주의 전략회의
9/12	대만 타이페이	제2회 아시아 민주주의 운영위원회의
11/24 - 11/25	대한민국 서울	민주주의 공동체(CD) 강화를 위한 아시아 지역 회의



B. 기업과 인권

사업개요



올해 발생한 세월호, 대한항공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인권적 책무성 원칙과 실행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엔은 기업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범과 제도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스위스의 다국적 식품회사인 네슬레(Nestle)는 세계 최초로 기업 활동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단은 기업의 인권적 책무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가 발간한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가이드)을 번역하여 공공/민간 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네슬레의 인권영향평가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간의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2014 주요사업

■ 효과적인 민관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민관협력(PPP) 주제교육(1,2)

- 일시 _ 2014년 3월 20-21일 (1차), 5월 21일(2차)
- 장소 _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
- 참석인원 _ 35명
- 강사진 _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정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선임연구원), 안정권 (영국표준협회 심사원/마케팅 매니저), 이은경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 전지은 (국제개발 협력민간협의회 정책센터 대리)
- 주요내용
 - _ 국제개발협력 역사와 개념
 - _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단체
 - _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원칙
 - _ 기업과 CSR; 주요 CSR 원칙과 이니셔티브,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관성
 - _ 민관협력(PPP) 개관; PPP의 개념과 기본원칙, 그리고 유형



■ 해외 CSR 전문가 초청강연 및 포럼 “글로벌 CSR 최신동향과 민관협력(PPP)”

- 일시 _ 2014년 4월 25일
- 장소 _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 참석인원 _ 120명

프로그램

연사	김정희 교수 (현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 APU, 일본)
주요내용	_ 글로벌/아시아 CSR 최신동향과 주요 국제기준(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C 10대 원칙, OECD 가이드라인, ILO 핵심노동기준 등) _ 전략적 CSR 관점에서 바라보는 민관협력(PPP) _ CSR과 민관협력(PPP)에 대한 인권적 접근
좌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패널토론	시민사회 _ 김동훈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눔부문 부장) 정치혜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GRANT&PNS 팀장) 학계 _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계 _ 선미라 (미국변호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기업 _ 이은경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박정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선임연구원) 정부 _ 정유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관협력실 부실장)



■ 효과적인 민관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민관협력(PPP) 사업실무과정

- 일시 _ 2014년 5월 23일
- 장소 _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 참석인원 _ 35명
- 강사진 _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연구실장)
- 주요내용
 - _ 인권기반접근(HRBA)과 PCM(Project Cycle Management)의 이해
 - _ Group Work1: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도출
 - _ Group Work2: 좋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_ 사업종합평가

■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번역 및 해외인권영향평가 사례수집, 분석

- 기간 _ 2014년 7 - 11월
- 연구진 _ 송세련 (책임연구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훈 (공동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정은주 (연구보조원, 한국인권재단 간사)
- 연구성과
 - _ 번역자료: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HRIAM), 국제비즈니스리더스포럼(IBLF), 국제금융공사(IFC), 2011
 - _ 연구보고서: “해외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사례연구; Nestle를 중심으로”
- 연구용역결과 발표회
 - _ 일시: 2014년 11월 5일
 - _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_ 주제: 기업 인권영향평가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번역 및 해외 인권영향평가사례연구

발표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토론 이은경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안정권 (BSI 영국표준협회 심사원), 정선애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센터장)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과거 ‘기업’과 ‘인권’은 불편한 조화였다. 그러나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권적 책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인권침해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업 기회의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권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기업과 인권’은 더 이상 어색한 표현이 아니다.

마침 유엔은 2011년 기업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을 채택하였고, 영국, 덴마크와 같은 주요 국가들도 이를 국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규범체계의 정비와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업들도 스스로 인권위험을 예방하고, 인권을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 주류화 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스위스 기업인 네슬레(Nestle)가 인권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이정표

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을 넘어 인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어떻게 ‘인권경영’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단은 국내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두 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하나는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국적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네슬레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이다.

인권경영을 위한 이정표, HRIAM가이드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HRIAM 가이드)은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와

협력하여 국제 비즈니스리더스포럼(IBLF),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동 제작하였다. 이 지침은 기업 경영활동으로 초래되는 인권 위험과 영향을 사전평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기업들이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HRIM가이드는 서론에서 인권의 개념과 규범과 더불어 '준비'부터 '사후평가'까지 수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HRIAM 지침은 사례 해설집을 수록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하여 인권 실사(due dilligence) 연습과정을 보여준다. 총 12개의 산업부문에 대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추상적일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 수행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인권 침해여부는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명할 수 있다.

네슬레의 경험을 통해 바라본 인권영향평가 수행 가능성

네스퀵, 네스카페로 우리에게 친숙한 네슬레(Nestle)는 다국적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도하였다. 보고서는 네슬레의 인권영향평가 수행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이 주는 의의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양, 건강 및 웰니스(wellness)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네슬레는 전 세계 10억 개가 넘는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네슬레는 33만 명이 넘는 직원과 86개 국가·447개 공장을 갖고 있으며, 공급망(supply chain) 수는 170,000개에 이른다. 때문에 공급망이 광범위하고 수직적으로 길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 실제로 2012년에는 코코아 생산 과정에 아동노동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네슬레는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DIHR,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와 공동으로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네슬레는 기업정책으로 국제인권장전, ILO의 핵심협약,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을 경영정책에 반영하였다. 인권영향평가 수행으로는 범위 파악, 평가, 실행과 내재화, 그리고 모니터와 소통이라는 4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네슬레와의 인터뷰에서 담당자는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비용과 시간, 외부환경에 있어서 한계가 따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인식과 압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권적 책임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두 권의 보고서가 기업의 인권적 책임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보고서는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C. 도시와 인권

사업개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은 이제 지방정부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권패러다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된 ‘인권도시’를 유엔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인권은 국가와 유엔 등 정부간 기구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국가의 책무중심으로 논의된 기존 인권담론에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단은 광주시가 해마다 5월 18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주최한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인권도시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외 인권도시 운동을 소개하고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재단은 국내외 인권도시 흐름을 소개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도시의 개념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 보고서(한국어/영어)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한국인권도시백서>를 통해 광주시, 서울시, 성북구 등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2014 주요사업

■ 지방정부와 인권연구

- 지원기관 _ 광주발전연구원
- 기간 _ 2014년 4 - 8월
- 연구 성과
 - _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보고서(국문), 2014 한국인권도시백서(국문)
 - _ Report On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2014(영문)
- 참여연구진
 - _ 이성훈 (책임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_ 진미영 (연구원, 한국인권재단 프로그램 팀장)
 - _ 김수빈 (보조연구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_ 이혜령 (보조연구원,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 지방정부와 인권 세미나 (1차-4차)

일시·장소	주요 내용
1차(1/27) 한국인권재단 사무국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인권도시 국내외 동향과 현황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
2차(2/11) 한국인권재단 사무국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서울시립대 정성훈 교수) 인권도시 프레임워크와 광주인권도시 원칙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
3차(4/29) 연세대 광복관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기능과 위상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지역별 인권위 구성, 연혁, 활동내용, 주요성과와 한계 (서울시, 울산시, 광주시, 서울시서대문구)
4차(5/15) 서울여대 대학로 캠퍼스	인권도시 만들기 모범사례 & 도시권과 인권도시 이해 (국제주거연맹 대표 로레나 자레테,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연합 사무국장 에바츄예카)



■ 제4회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_ 2014년 5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요 참가자 명단 (총 29명)

이름	소속
Mr. Dheerujall SEETULSINGH	UN HRCAC, Chairperson of the Drafting Group, Mauritius
Dr. CHUNG Chinsung	Human Right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former member of UN HRCAC, Korea
Mr. LEE Kyungryul	Director, Human Rights Office,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Mr. Latif HÜSEYNOV	UN HRCAC Rapporteur of the Drafting Group, Azerbaijan
Ms. Meena RAMKAUN	Secretary a.i. UN HRCAC, OHCHR, Mauritius
Mr. Syed Muhammad Ashgar Shah GILLANI	UCLG Asia Pacific President,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 of Punjab, Pakistan
Dr. Michele GRIGOLO	Center for Social Studies, University of Coimbra, Portugal
Ms. Lorena ZARATE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HIC), Argentina
Mr. Antoine SONDAG	Director of the Department for Universal Mission Frenc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France
Ms. Eva G. CHUECA	UCLG, Spain
Dr. CHUNG Youngsun	Chu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Ms. Katharina WOLLENBORG	Human Rights Commissioner, Municipality of Huddinge, Sweden
Mr. Syed Muhammad Ashgar Shah GILLANI	UCLG Asia Pacific President,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 of Punjab, Pakistan
Mr. Manoj RAI	PRIA, India
Mr. Hilman HANDONI	INFID, Indonesia



D. 개발과 인권

사업개요

2015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만료되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현재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로 논의되고 있음)가 수립되는 해입니다. 한국정부는 2009년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에 가입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민총소득(GNI)대비 0.2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포함한 제1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재단은 지난 5년 동안 개발과정에서 인권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개발의 결과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인권기반접근(HRBA)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역량을 스스로 키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올해 수행한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는 인권적 관점에서 한국 ODA를 평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국제 개발협력 과정에 인권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2014 주요사업

■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성과

_ 보고서 발간: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 기간 _ 2014년 4 - 12월

• 지원기관 _ 국가인권위원회

• 공동수행기관 _ 한국인권재단,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참여연구진

_ 책임연구원 _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_ 연구원 _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_ 연구보조원 _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간사), 전지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리)

임유경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 현지조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 기간 _ 2014년 7월 19일 - 8월 3일

• 방문기관

방글라데시 _ Agricultural Development Agencies in Bangladesh (ADAB), Asian Development Bank (ADB) Bangladesh Mission, Asian Development Bank (ADB) Head Quarter,



Manila, Bangladesh Resource Center for Indigenous Knowledge (BARCIK), Embassy of Sweden,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overnment of Canada, High Commission of Canada, INCIDIN Bangladesh,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ngladesh, UN(Office of the UN Resident Coordinator in the UN System in Bangladesh),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Bangladesh, Village Education Resource Center(VERC),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 Empowerment(Voice)

캄보디아 _ Australian Embassy, Asian Development Bank (ADB) Cambodia Mission, 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CCHR),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ADHOC),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Development and Partnership in Action, Embassy of Sweden, Equitable Cambodia,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mbodia (OHCHR),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CAMBODI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ambodia

■ 연구결과 발표회

- 일시 _ 2014. 12. 12(금) 14시 ~ 17시 30분
- 장소 _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제 _ 2014년 연구용역결과 발표회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연구”
- 발표 및 토론

발표

발표1.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과 유엔 및 주요 공여기관의 인권적 접근
이주영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발표2. 인권 관점에서 본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와 정책 과제
이성훈 (공동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토론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현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이태주 (한성대 교수, ODA WATCH 대표)
임소진 (대외경제협력기금 · EDCF 선임연구원)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HRBA 분과 운영

- 기간 _ 2014년 5 - 12월 (총 6회 진행)
- 참여단체 _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민주연대, 한국인권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재단
- 주요세미나 내용
 - _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UN, 국제시민사회, 주요 공여 기관의 정책 과 실행전략을 검토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모색함
- 검토자료
 - _ 인권과 국제개발협력 - 유엔과 개발원조기관의 정책 소개 (2014, 한국인권재단 편역)
 - _ Who Will Be Held Accountable? Human Rights and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2012, UN OHCHR and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주민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요즘 국제개발협력은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매우 관심받는 분야가 되었다. 소위 “스펙 좋은” 청년들도 국제기구, KOICA와 같은 정부 실행기관, NGO로 진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넘치는 수요를 반영하듯 각 행정부처와 시민사회, 기업, 대학 등이 운영하고 있는 단기연수와 봉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 주민의 인권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이 안정된 조직체계를 갖춘 일자리의 보장으로 연결되려면 더더욱 어렵다. 그나마 어렵게 기회를 얻은 젊은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열정페이(Pay)만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가 술렁거린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급속히 팽창한 개발협력 규모에 비해 본래의 가치와 수행방식에 내실을 갖추지 못한 개발협력 분야의 자화상이다. 실제로 한국의 개발협력은 사업모델의 방향성과 내용, 체계적인 평가와 성과관리, 수행주체의 인적역량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미 오래전 국제사회에서는 개발협력의 목적이 빈곤퇴치와 수원국 주민의 인권증진에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하였고, 인권을 주류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97년 코피아난 前 유엔 사무총장이 개발협력 활동 전반에 인권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 이래,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권기반접근(HRBA)에 관한 원칙과 전략을 합의하고 국가별 적용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선두 국가들은 개발협력에 관한 고유 인권전략 및 정책을 법체계로 수립하고,

실행과정에서 이를 적용함으로써 모범이 될 만한 경험들을 풍부히 쌓아왔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권적 접근의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역사는 1990년대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의 지위가 전환되고,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비교적 짧고 압축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발맞춰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09) 등 국내 법규범 체계에서는 인권 증진, 인권 주류화를 개발협력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스가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라는 새로운 개발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개발’이 경제개발과 빈곤퇴치, 사회적 포용,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통합적 발전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물려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ODA 선진화 방안> 등 국내 법규범도 함께 개정되는 중요한 시기로써,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인권 주류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재단은 개발과 인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의 주요 수행주체와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기반접근(HRBA)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리고 올해에는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2015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발협력에 인권을 접목하는 다양한 방식

본 연구에 의하면 개발협력에 인권을 접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개발협력은 ‘인권기반접근(HRBA)’, ‘인권주류화’, ‘인권대화’, ‘인권사업’, ‘간접적 방식의 인권증진’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권을 접목시킬 수 있다. 먼저 ‘인권기반접근(HRBA)’은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서 개발계획, 정책·사업 결정, 실행, 평가의 전체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편원칙과 인권기준을 반영하는 것을 시도한다. 특히, 빈곤의 근본원인인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명하고, 주민들의 권한 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로 바꿔내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주요 공여국들은 인권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인권사업’을 실시하는데,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역량개발 프로젝트(방글라데시)를 수행하는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인권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개혁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사법 접근권과 법 앞의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스웨덴 사례를 들어보자.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적 관점은 빈곤층의 인권증진에 있기 때문에, 양자원조의 가장 높은 비율인 28%가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자유독립론 지원, 보통선거권 보장, 민주적 정당체계 발전,

공공행정, 반부패, 사법체계 기능 강화, 인권옹호자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ODA의 형태로 개도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인권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협력사업에 있어도 인권기반접근(HRBA)가 전제 되어있으며, 개발이 야기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인권관점에서 본 한국개발원조의 정책과제

위의 사례를 단시간에 적용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건, 교육, 식수사업 등과 같이 기존의 사업들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간접적 방식으로 인권을 주류화 할 수 있다. 국가 정책과제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국무 조정실 차원에서 법규범에 대한 재정립과 더불어 인권 주류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무상 원조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전략과 지침도 마련해볼 수 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와 세이프가드의 제도화, 사업 분야별 인권가이드라인, 인권기반접근(HRBA)에 따른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인권의 통합적 고려가 달성될 수 있다. 물론 법과 규범의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발협력 수행주체 모두의 평등한 파트너십이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새로운 개발목표가 설정되는 2015년에는 인권이 보다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각각의 수행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

- 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독립연론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CCHR)가 수행 중인 캄보디아 인권 라디오 방송부스에서
- 2. 방송기기를 조정하고 있는 인권 활동가들
- 3. 아시아개발은행(ADB) 방글라데시사무소 세이브가드 정책 담당자와 함께



2



3

E. 인권교육

사업개요



재단은 시민, 청년, 학생,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가 등이 국내외 인권현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체계적인 인권 담론과 이론을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과정으로 'PHD(Peace-Human rights-Development) 글로벌 리더십 스쿨 교육과정'을 통해 평화, 인권, 개발을 심층적으로 연계하여 고민해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

련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제2회 '모의 UN인권이사회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프로그램을 통해 UN 등 국제인권기구 및 NGO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청년에게 인권변론과 인권외교 및 인권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보다 성숙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4 주요사업

■ 2014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 일시 _ 2014년 8월 23일
- 장소 _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법학관)
- 참석인원 _ 본선진출자 총 48명(대학생 팀 8팀, 대학원생 8팀)
- 공동주최 _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 후원 _ 법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법무법인 로텍, 법무법인 한결
- 협찬 _ 삼성전자, SK 텔레콤, GS 칼텍스
- 대회주제

학부 오티스(가상국가) 국적의 아메드는 국내외 테러 관련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는 스카이(SKY)회사의 직원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도청 테러관련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측의 과도한 정보 수집과 도청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됨. 결국 양심선언을 통해 회사와 오티스정부의 정보도청 사실을 공개 후, 헬베스(가상국가)로 망명하였고, 오티스 정부는 부모와 아메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범법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헬베스 정부에게 아메드의 송환을 요청하였음. 이에 아메드는 오티스 정부를 국제인권재판소에 제소함.

대학원 최빈국 암비아(가상국가)의 한적한 해변가에 살고 있는 미카와 마을 주민들은 주거지 보존 및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정부가 다국적 기업 카세스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카세스 회사는 CSR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암비아 정부는 계약의 합법성과 원자력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추진. 미카는 주민을 대표하여 카세스 회사와 암비아 정부의 불법거래 및 주민동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암비아 정부를 국제인권재판소에 제소함.

- 대회부상
 - _ 법무부 장관상(대학, 대학원부문 각 1위 팀)
 - _ 우수팀 6팀(18명) 공동주최기관장상 시상 및 본선 진출 부문별 각 16팀 본상 시상
 - _ 국제인권연수 제공(파리, 제네바, 헤이그 소재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 방문)



• 본선 심사위원

No	이름	소속
1	강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김동국	법무법인 로텍 대표 변호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3	김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4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김종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7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8	김태천	대구가정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9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前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인권재단 고문
10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	박찬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14	백가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평화국제팀 간사
15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6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휴먼아시아 대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7	선미라	미국변호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18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	신재환	사법연수원 교수,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
20	염규홍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1	유제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2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3	이석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24	이정국	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5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6	이혜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7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28	장복희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29	장영석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장
30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 변호사,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31	정경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2	정연순	정연순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33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
34	정희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35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화여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36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7	한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한국인권재단 감사
38	홍관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상자 내역

상명	부문	팀명	이름	부상
법무부 장관상	대학	어떤시선	이경빈, 손성동, 전민규	국제인권 연수
	대학원	헤아림	차민형, 신유정, 김덕현	
공동주최기관장상	대학	Lee&Yeon	연승호, 이기욱, 이대관	도서상품권
	대학원	외인구단	유성열, 홍다영, 이다정	
공동주최기관장상	대학	청연재	박진석, 한예진, 곽재완	
		두근두근	배상윤, 김연수, 정소정	
	대학원	어니스트	장희경, 정기혜, 최강용	
	인품	이선민, 김민선, 유상욱		
서면 최우수상	대학	어떤시선	이경빈, 손성동, 전민규	
	대학원	어니스트	장희경, 정기혜, 최강용	
서면 우수상	대학	Hominis	신동아, 윤정은, 이승민	
	대학원	외인구단	유성열, 홍다영, 이다정	



■ 2013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국제인권연수

- 일정 _ 2014년 2월 7일 - 2월 25일
- 장소 _ 파리, 헤이그, 제네바 등 유럽 등지
- 참석인원 _ 2013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수상자 등 15명

도시	날짜	방문 기관
파리	2.1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요궁 Palais de Chaillot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목수정 작가, 이예다, 여노래와의 담화 • 페르 라세즈 묘지 Père Lachaise Cemetery • 국제인권연맹(FIDH)
헤이그	2.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 이준열사 박물관 Yi Jun Peace Museum • 국제형사재판소(ICC)
제네바	2.2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제네바사무소(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국제노동기구(ILO)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제네바 인권대화 3G Talk • 장 지글러(Jean Ziegler) UN 자문위원과의 담화

• 연수 참가자 명단

대학	설경(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신나리(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이진실(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임효원(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지나현(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오현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천우(서울대학교 정치학대학원), 임준형(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지연(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자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예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도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솔자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해정(한국인권재단 프로그램 팀장), 이정국(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 2014 모의UN인권이사회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 일정 _ 2014년 7월 10-11일
- 장소 _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 삼익홀
- 참가대상 _ 대학생, 대학원생
- 공동주최 _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
- 후원 _ 외교부, 법무법인 원
- 참석인원 _ 국내·외 대학(원)생 총 80명 - 한국어·영어 부문 각각 40명
- 본선 심사위원 명단

부문	성명	소속
한국어 부문	한승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백가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영어 부문	이성훈(심사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김지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윤채은	UN인권 최고대표사무소 前인권담당관

• 프로그램

일자	시간	내용	비고
7. 10. (목)	9:00~10:00	개회식 (서울대 부총장 환영사)	영원홀
	10:00~12:30	UPR-ROK (대한민국)	영원홀(한국어 대회) 삼익홀(영어 대회)
	12:30~13:30	중식	
	13:30~16:00	UPR-JAPAN (일본)	영원홀(한국어 대회) 삼익홀(영어 대회)
7. 11. (금)	9:00~11:30	UPR-CHINA(중국)	영원홀(한국어 대회) 삼익홀(영어 대회)
	11:30~12:30	중식	
	13:30~15:00	UPR-DPRK(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원홀(한국어 대회) 삼익홀(영어 대회)
	15:00~17:00	국제인권퀴즈	삼익홀
	17:00~18:00	시상식 및 폐회식	영원홀

• 수상자

상명	부문	정부 역할	참여국	성명	소속	비고		
대상	한국어	일본 3팀	베트남	정수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총장상		
				하태승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국제인권연수		
	영어	중국 4팀	알제리	김수빈	연세대학교 정치국제관계	외교부장관상		
				서지원	연세대학교 정치국제관계	국제인권연수		
우수	한국어	한국 5팀	휴먼라이트와치	허한욱	경희대학교 법학부	자유상		
				윤태환	경희대학교 사회학			
				중국 2팀	브라질	권소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	평등상
				정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북한 3팀	인도	안태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평화상		
				정주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북한 1팀	독일	곽예신	서울대학교 법학과	정의상
				강나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어	중국 1팀	프랑스	김민우	고려대학교 법학과	자유상		
				이문열	고려대학교 경영행정			
		북한 2팀	아르헨티나	김영진	중앙대학교 경제학	평등상		
				양지혜	서강대학교 정치학			
		북한 5팀	포럼아시아	정다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평화상		
				김지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한국 1팀	영국	백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	정의상				
		임효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					



■ DHL(Development & Human Rights Lexicon) 1, 2기

• 일정

_ 1기 DHL: 2014년 3월 1일 - 3월 24일

_ 2기 DHL: 2014년 4월 1일 - 5월 24일

• 장소: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인권재단 사무처

• 참석인원: 1기 25명, 2기 25명

• 강의내용

	주요 내용
1기	1강 - 국제 NGO 및 국제기구 2강 - 인권 3강 - 국제개발협력/ODA
2기	1강 -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개념과 최신 용어(1) 2강 -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주요 내용과 용어 3강 -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개념과 최신 용어(2) 4강 - OECD DAC의 한국 ODA 정책 개선 권고안에 담긴 주요 내용과 최신 용어

■ PHD (Peace-Human Rights-Development) Glocal Leadership School 1기

• 일정 _ 2014년 3월 6일 - 5월 8일 (10회)

• 장소 _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 참석인원 _ 18명 (대학·대학원생,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담당자 등)

• 강사진 _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대훈(성공회대학교 평화학 교수),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학 교수)

	내용	강사
제1주 (3/6)	강좌 안내 및 교재 소개 / 총론 : 평화 - 인권 - 개발의 연계	이성훈
제2주(3/13)	평화 1: 이론 - 국제관계와 평화의 기본 개념과 키워드	이대훈
제3주(3/20)	평화 2: 맥락 -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운동	이대훈
제4주(3/27)	평화 3: 적용 - 평화와 인권, 평화와 개발의 연계	이대훈
제5주(4/3)	인권 1: 역사 - 인권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	조효제
제6주(4/10)	인권 2: 이론 - 인권의 기본 개념과 특성	조효제
제7주(4/17)	인권 3: 제도 - 국제 및 국내 주요 인권보장 제도	조효제
제8주(4/24)	개발 1: 이론 - 개발과 개발협력의 기본 개념과 키워드	이성훈
제9주 (5/1)	개발 2: 제도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단체와 운동	이성훈
제10주(5/8)	개발 3: 적용 - 주요 국제 NGO의 Advocacy 종합 및 수료식	이성훈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구체적 사례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을 익히고,
인권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모색하는 배움의 장

“만약 내가 다니던 회사가 국가 지정 테러단체 및 수교국가의 외교 담당 부서, 국제기구와 국제인권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사용하는 전자메일 계정 및 전화를 도청하고, 나를 포함한 회사 직원도 도청·감시하고 있었다면...?”

“만약 관광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우리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다면...?”

위의 내용은 2014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의 출제문제로, 진정인(당사자) 측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즉, 피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테러 위협이 많은 요즘 다수의 국민 보호를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진정인의 부모가 테러단체에 오랜 기간 후원을 하고 있어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시한 것이다.”

“정해진 법에 따라 주민의 70%가 동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왜 이제야 뒤늦게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반대하는 것인가?”

지난 2011년부터 재단은 청년·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이슈들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이해하고, 국제인권법규범을 기반으로 인권적 대안을 찾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모의 법정에서 선 참가자들은 본선과 결승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입장을 바꿔가며 주어진 입장에서 변론을 합니다. 법률가,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활동가 및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변론 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인권감수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본 대회의 수상자들은 다음 해 2월 겨울, 유럽 국제 인권연수에 참가합니다. 국제인권연수에서는 제네바 유엔 본부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비롯한 유럽 주요 도시의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인권의 주요현장을 견학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역할과 활동을 배웁니다. 참가자들은 본 대회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인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재단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인권 감수성과 지식을 높이고, 다양한 인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이번 국제인권연수는 그동안 인권의 문제를 ‘분노’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였던 나에게 인권을 바라보는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이 연수의 경험을 통해 각각의 다양한 층위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을 이해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신나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연수과정은 내게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인권적 관점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본 방향이 무엇인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런 나의 깨달음은 인권의 수호라는 직분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법조인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예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동북아시아 4개국의 인권상황
검토를 통해 동북아 인권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인권현황을
역할극을 통해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

2014년 7월 28일, 한국정부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끊임없는 질문과 한국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일본, 중국,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가
시작됩니다. 이는 UN 제네바 본부가 아닌 한국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과 외국 국적의 대학생 약
100여명이 이 행사의 주역입니다.

2013년 처음 개최된 <모의 유엔 인권이사회 UPR>
은,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설한 국가별인권

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의 행사입니다. 2013년 첫 대회는 한국어 부문으로 진행되었고, 2014년 제2회 대회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소!

인권은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1948년,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합의하였으나, 6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UPR 제도는 한국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UPR에서 다루는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본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4개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정부보고서, 인권단체(NGO) 등 이해관계자 보고서, 유엔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인권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4개국 정부대표의 답변과 이에 질의하는 다른 정부 측 외교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UPR 제도를 통한 ‘인권외교’를 체험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공부합니다.

올해 2015년은 마그나카르타 800주년을 맞아 국제적으로도 인권의 중요성과 인식이 재조명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의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문화

인권홀씨기금

인권홀씨기금은 2008년부터 연 1회 인권의 가치를 실천해온 이들에게 수여한 <홀씨기금상>을 개편하여 다양한 영역의 '작은' 인권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인권을 주제로 한 사업을 진행하는 개인과 소모임에 지원하며, 사업 당 최대 1백만 원, 연간 1천만 원 상당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다독(多讀)다독 캠페인 - '인권을 다독(多讀)하자 사람을 다독이자'

재단은 2011년부터 진행해온 '올해의 인권책' 사업선정을 확대하여 인권책 100권을 선정 및 보급하는 '다독(多讀)다독 캠페인'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 2013-14년 100권의 소개를 담은 소책자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의 지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였고, 인권책이 필요한 9곳의 마을 도서관에 '인권책 100선'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인권책 읽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인권책 100선 소책자, 포스터 발간 및 보급

- 인권도서 100선을 선정해 소책자자료 제작 및 배포
- 배포대상 : 전국 국공립, 마을 도서관, 출판사 총 500 곳

2) 인권책 100선 지원사업

- 공모사업을 통해 인권책을 통한 활동계획이 있는 마을 작은 도서관에 인권책 100선 지원
- 지원내용 : 인권책 100선 1세트

2014 발간자료



인권과 국제개발협력(유엔과 개발원조기관의 정책 소개):2014년 3월

개발협력에 인권을 통합하는 유엔의 프레임워크, 각국 정부의 정책을 번역하여 소개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지원)



효과적인 민관협력(PPP)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정:2014년 3, 5월

개발협력단체를 대상으로 민관협력(PPP)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자료로, 입문과 실무과정으로 나누어 발간되었습니다.(한국국제협력단 지원)



효과적인 민관협력(PPP)을 위한 국제 CSR전문가 초청강연 및 포럼

“글로벌 CSR 최신동향과 민관협력(PPP)”:2014년 5월

국제 CSR 전문가 초청강연 및 패널토론 자료가 담겨있습니다.(한국국제협력단 지원)



2014 모의 UN인권이사회 UPR:2014년 7월

제2회 모의 UN인권이사회 UPR에 관한 일정, 대회규칙, 참가자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2014 국제인권연수보고서:2014년 7월

2013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부상으로 진행된 2014 국제인권연수에 관한 자료집입니다.



2014 한국인권도시백서:2014년 8월

2012년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한국 인권도시 운동을 제도, 규범,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고 각 지자체들의 인권도시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광주광역시 지원)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보고서 2014:2014년 8월

인권도시 담론과 운동의 흐름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광주광역시 지원)



2014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자료집:2014년 8월

국제 인권재판대회의 일정, 대회규칙, 출제문제, 참가자, 심사위원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2014 기업과 인권 연구용역 발표회 자료집:2014년 11월

HRIAM 및 해외인권영향평가 사례의 수집,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회
자료집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지원)



인권 영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HRIAM가이드):2014년 12월

국제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IBLF)과 국제금융공사(IFC)가 발간한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의 번역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해외 기업의 인권 영향 평가 사례 연구 - Nestle를 중심으로 -:2014년 12월

Nestle의 인권영향평가 수행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과
분석이 담겨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지원)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연구 보고서/토론회 자료집:

2014년 12월

주요 공여국의 인권기반접근(HRBA) 현황과 국내 개발협력 정책과제를 살펴
볼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지원)

온라인 뉴스레터 및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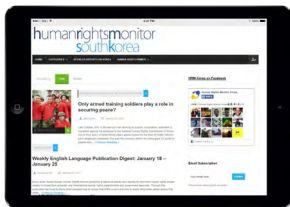
정기뉴스레터

재단과 국내외의 주요 인권활동을 전하는 온라인 소식지로
격월로 짝수 달에 발간



인사동편지

인권을 생각하고 재단의 미션에 동참하는 후원회원 전용
뉴스레터로 격월로 홀수 달에 발간



HRM(Human Rights Monitor) <http://www.humanrightskorea.org>

국내 주요 인권뉴스를 영문 뉴스로 제작하여
해외로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운영



한국인권재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rhf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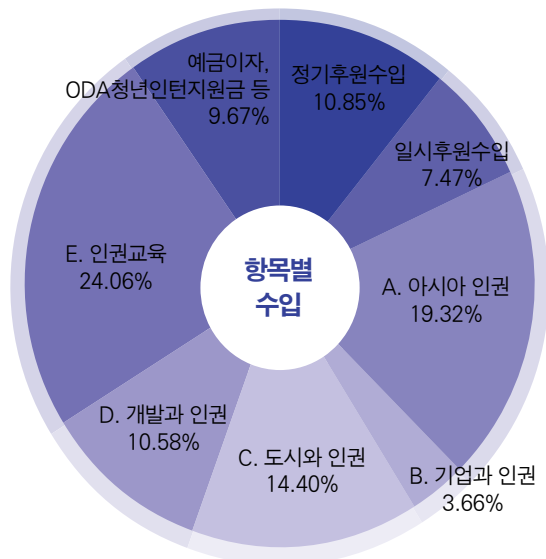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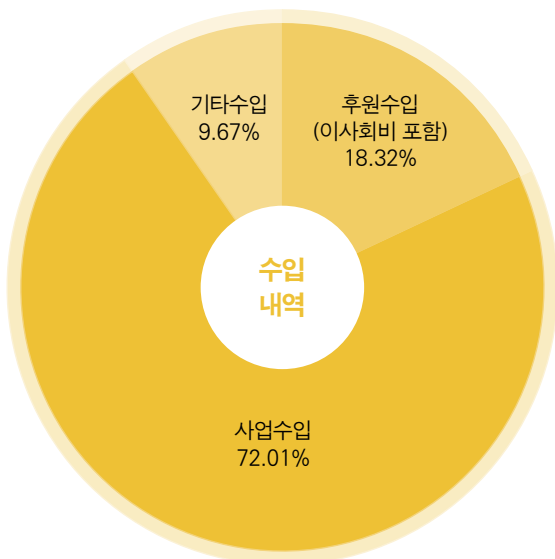
사업 관련 행사와 소식을 친밀히 나누는 공간

재정보고

■ 사업별 수입 내역 (2014. 1. 1 ~ 2014. 12. 31)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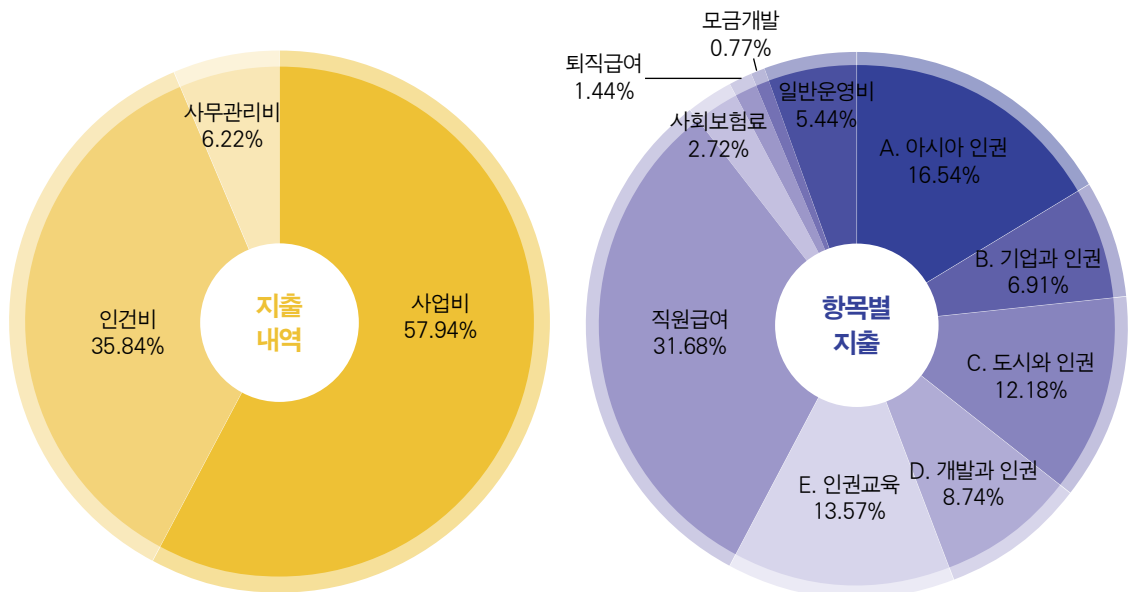
수입	구분	소계	항목	금액
후원수입 (이사회비 포함)		81,858,630	정기후원수입	48,475,000
			일시후원수입	33,383,630
사업수입		321,805,978	A. 아시아 인권	86,313,477
			B. 기업과 인권	16,359,500
			C. 도시와 인권	64,348,123
			D. 개발과 인권	47,279,590
			E. 인권교육	107,505,288
기타수입		43,198,557	예금이자, ODA청년인턴지원금 등	43,198,557
합계				446,863,165



■ 사업별 지출 내역 (2014. 1. 1 ~ 2014. 12. 31)

(단위:원)

지출	구분	소계	항목	금액
사업비	사업비	281,434,899	A. 아시아 인권	80,325,386
			B. 기업과 인권	33,558,080
			C. 도시와 인권	59,182,996
			D. 개발과 인권	42,456,446
			E. 인권교육	65,911,991
인건비	인건비	174,105,131	직원급여	153,898,755
			사회보험료	13,206,690
			퇴직급여	6,999,686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30,209,163	모금개발	3,762,890
			일반운영비	26,446,273
합계				485,749,193



후원기금 및 회원가입 안내

후원기금 안내

① 지정기금

- 인권교육기금 :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모의UN인권이사회UPR, 시민교육 ‘인권 제대로(路)’ 등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 인권문화기금 : 인권홍씨기금, 올해의 인권책 등 인권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 인권연구기금 : 개발과 인권, 기업과 인권, 도시와 인권 등 재단이 수행하는 연구 사업에 쓰입니다.

② 비지정기금 : 한국인권재단 사무국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주요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배분하여 쓰입니다.

후원회원님께 드리는 혜택

- ① 월 1회 뉴스레터 제공 : 한국인권재단 활동 및 인권 관련 소식을 담은 정기뉴스레터와 인사동편지를 보내드립니다.
- ② 인권책 1권 제공 : 올해의 인권책 또는 인권책 100선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하여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③ 참가비 할인 : 한국인권재단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 프로그램의 참가비를 일부 할인해 드립니다.
- ④ 기부금 세액공제 : 한국인권재단은 재정경제부 차관 지정의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 방법

- ① 온라인 회원가입 :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서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후원회원가입서 작성 : 재단에서 제공한 후원회원가입서 및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③ 기타 : 네이버 해피빈재단에서 운영하는 해피빈 모금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기타 안내

- 전화번호 : 02.363.0601(후원담당)
- 이메일 : khrf99@gmail.com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1201-04-062801 (예금주 한국인권재단)

후원해 주신 분들

개인

강병수 강선주 강희원 고광현 고대건 고브니엘 구정우 권가령 권재용 김강이 김경희
 김광모 김광현 김동국 김두미 김명신 김민호 김봉태 김선수 김성수 김소연 김소정
 김수진 김신자 김영석 김영환 김용진 김익현 김재삼 김재원 김정 김정린 김종철 김종섭
 김철홍 김태균 김태천 김하영 김현미 김현정 김혜련 나해철 남강욱 남수정 노미선 노현수
 도영아 류수경 마호길 목홍균 문경란 문도운 문정주 민경일 박광우 박명규 박명림 박문진
 박병훈 박은정 박은주 박찬성 박찬운 박채향 박현선 배상윤 배진수 백범석 백태웅 서수연
 서수정 서재왕 서정은 서창록 서혁진 석경화 선미라 선현주 성유진 손혁상 송세련 송혜원
 신국식 신연숙 신재환 신창호 안선희 안종성 안진 안현지 양금식 양승진 양현아 염규홍
 오선영 오영옥 유남영 윤재훈 윤채은 윤현봉 은수미 은우근 이범 이상덕 이상수 이석태
 이성욱 이성택 이성훈 이승한 이승협 이승환 이아진 이영화 이윤정 이은경 이은영 이재은
 이정국 이주영 이창휘 이현재 이화진 이혜원 임미재 임소진 임소희 임인기 장경태 장성국
 장영석 장영순 장용석 장정원 장주영 장필화 전지은 정근식 정미화 정선애 정성훈 정영선
 정연순 정용주 정원주 정은주 정인섭 정진성 정희영 조영국 조은기 조인완 진선미 차병직
 채형복 최갑수 최형임 태영선 한승철 허두영 홍관표 황광만

기업 후원 및 협찬

법무법인 로텍, 법무법인 한결, (주)하우스크리에이티브
 삼성전자, GS 칼텍스, SK 텔레콤

협력 · 후원기관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아시아연구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전미민주주의기금(NED),
주한미국대사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기업과 인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 국가인권위원회

도시와 인권

광주광역시,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재)광주발전연구원

개발과 인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법무부, 외교부, 주한미국대사관,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펠로우&인턴

펠로우

김인영, 나혜수, 송영균, Daniel Corks

인턴

김서경, 김수빈, 김현, 나지수, 안민석, 오수영, 유하나, 유현상, 이보현,
이혜령, 전해영, 최은혜, 최지우, Aileen So, Ekaterina Mozhaeva, Kelly Jung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

-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신용석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 최영도 (반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한상진 (한상진 사회이론연구소 소장, 서울대 명예교수)

임원

- 이사장_ 고헌헌 (시인, 前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사장)
- 상임이사_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이사_ 김동국 (법무법인 로텍 대표 변호사)
 - 김은주 (김은주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 민경일 (신부, (재)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 선미라 (법무법인 한결, 미국변호사)
 -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한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감사_ 강희원 (아이오티연구소 대표, 회계사)
 -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사무국

사무국장_ 오선영

사업팀장_ 진미영, 정은주

ADN팀장_ 서수연

간사_ 김혜정, 박수진, 양승진, 안선희, 유다예, 이보란

홍보/자원개발_ 최은영

회계_ 정은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8-1 4층(우편번호 136-032)

전화 (02) 363-0002 **팩스** 0505-115-3682

E-mail khrf99@gmail.com **홈페이지** www.humanrights.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011201-04-062801(예금주_ 한국인권재단)